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 되기를

우리는 지난 1975년 양록 산업 발전을 목표로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가 출범하여 올해 청장년의 나이인 32세에 이르렀습니다. 분회 창립 이후 양록인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내 집을 1996년 3월 경동시장 인근의 경동한방프라자 빌딩 내에 13평 남짓 규모로 마련한 이후 10년만인 올해 2월 6일 다시금 전국 양록인의 굳은 의지를 모아 서울시 서초동의 요지에 자산규모 9억 1천만원인 35평 규모의 큰 집을 마련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양록인에게 여러 가지로 뜻있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양록 산업의 자존심과 긍지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십시일반 성금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여러 양록인 및 관련기관 단체장 여러분께 이 글을 빌어 재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기반 삼아 우리는 양록인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양록 산업의 기반이 될 사슴이표장착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국내 엘크 숫사슴부터 이표가 장착될 것입니다. 이후 2007, 2008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국내 모든 사슴에 이표가 장착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사슴의 이동관리를 통한 질병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수입산 녹용의 위·변조방지과 차별화된 녹용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부의 50% 지원을 받아 전국 양록인에 대한 사슴질병 관리 및 우수성공 사례 등의 국내 교육과 해외 양록선진 국가를 방문하여 양록산물 생산 방법 및 가공 기술의 습득 등 선진 양록국가들의 고급 기술을 배우는 해외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변화된 양록 산업의 위상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양록인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지난 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각 도에 도지부를 신설하고 새로운 도지부장을 임명하여 조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각 지역 협회의 위상을 높여 지역 자치단체 및 축산관련 단체와의 유기

적인 협력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양록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회시기도 업무적으로 분주한 매년 1월에서 2월로 시의적절하게 변경하였고, 협회 사업업무도 사슴 생산물의 소비 확대와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 위생교육 부문을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나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양록인 여러분!

이제 한국의 양록 산업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양록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축산물 및 산업 터전은 우리만의 보장된 터전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FTA)은 무한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도축 및 위생, 축산폐수 처리규제, 질병방역 등 양록업도 모든 부문에서 보호막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해야 하고 끝없는 대안제시와 개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록산업도 이제 과거의 귀족 산업에서 하루 속히

탈피하여 양록 산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를 통한 양록 산물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 그리고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이 필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추진 중인 양록자조활동 자금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조금 사업은 목전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 양록업이 존재가 달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로서 알리지 않으면 양록업의 존재는 점차 퇴색하여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전국의 1만5천여 양록인 및 관련 단체 기관 여러분!

생존권은 나 하나가 아닌 우리 공동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양록인의 의식이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하나의 나뭇가지는 쉽게 부러지만 여러 개가 뭉쳐있는 나뭇가지들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할 때 우리의 많은 난제들은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김수근 회장